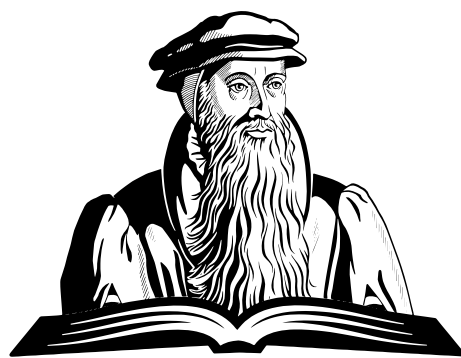

비디오 강의 학습 단계: 성경 신학

강의 7: 족장II

강의 발표자: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The John Knox Institute
of Higher Education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우리의 개혁된 유산을 전세계 교회에 위임하며

© 2019 존 녹스 고등 교육 연구소

판권. 이 출판물의 어떤 부분도 출판사의 서면 허가 없이 검토, 의견 또는 장학금을 목적으로 간단한 인용을 제외하고는 어떤 형태로든 또는 이익을 위해 어떤 수단으로도 복제될 수 없습니다.

출판사, 존 녹스 연구소, P.O. Box 19398, Kalamazoo, MI 49019-19398, 미국

달리 표시하지 않는 한 모든 성경 인용은 공인 킹 제임스 버전으로 합니다.

웹사이트방문: <https://ko.johnknoxinstitute.org>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은 스코틀랜드 자유 교회의 (continuing) 회중인 사우스 캐롤라이나 그린빌에 있는 그린빌 장로교회에서 복음목사로 섬기고 있습니다 www.freechurchcontinuing.org

학습단계

성경 신학

30 강의

로버트 맥컬리 목사님 M.DIV.

21 장 구약 · 9 장 신약

구약 강의들

1. 소개
2. 창조
3. 타락
4. 노아
5. 아브라함
6. 족장 I
- 7. 족장 II**
8. 출애굽
9. 시내산
10. 성막
11. 희생제물
12. 제사장
13. 유업
14. 다윗
15. 시편
16. 솔로몬
17. 성전
18. 왕국
19. 예언자
20. 포로기
21. 회복

구약 강의들

22. 성육신
23. 속죄
24. 부활
25. 오순절
26. 교회
27. 연합
28. 삶의 적용
29. 사명
30. 영광

강의 7

죽장II

강의 주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혈통 이외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영광에 대한 계시를 주십니다.

본문: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5:39).

강의 스크립트 7

여러분이 학교에서 어떤 이야기를 읽을 때 일반적으로 주인공을 포함하는 주된 줄거리와 이야기의 전개를 분별해 낼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이야기에서 주인공을 돕는 다른 등장인물들이 여기 저기에 배치되어 있는 것도 발견할 것입니다. 저자의 의도 속에서 이들은 동일하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구속사에 대한 하나님의 참되고 영감된 설명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메시아로 이어지는 주된 계보에 등장하는 핵심주제와 인물들에게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구원을 드러내기 위해서 친히 택한 다른 인물들도 성경에 포함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멜기세덱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는 창세기에서 등장했다가 그렇게 일찍 모습을 감춰버릴까요?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장엄한 목적과 구속과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요? 주님의 천사들이 여러번 등장한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 그들은 누구이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왜 성경을 신학적으로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할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은 42장으로 이루어진 욥기를 성경에 포함시켰으며 욥이 성경의 신학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셈에서 아브라함을 거쳐 야곱의 12아들에게 이르는 주요한 계보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이 강의에서 우리는 이제 아브라함의 직접적인 계보 밖에 있는 세 명의 중요한 인물들에 대해서 생각할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죽장 시대와 같은 시기에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 인물은 모두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성경을 전체로 볼 때 그 안에서 발전되는 주제를 추적하는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첫째로,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창세기14장에 세 절에 걸쳐서 아주 간략하게 등장할 뿐인데, 왜 지금 죽장시대를 간략하게 살펴보는 중에 포함시켜야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적어도 두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멜기세덱은 시편110편에 언급되어 있는데 여러분은 이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시편110편은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약의 장입니다. 복음서에서 그리스도께서도 인용하셨고 사도행전과 서신서들에서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멜기세덱을 이용해서 주 예수 그리스

스도에 대한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고 있듯이 히브리서에서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구세주의 영광을 보여주며 전체 성경이 어떻게 하나로 묶여져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두가지가 다 이 수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멜기세덱은 실제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우리가 그에 대해서 아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어떤 경건한 사람들은 멜기세덱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기 이전에 나타나신 것이라고 믿지만, 시편110편에 나오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라는 말과 히브리서7:3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이 멜기세덱”이라는 말에 반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다른 이유들 중에서도 그가 그리스도는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득력있게 제시합니다. 멜기세덱은 문자적으로, “의의 왕”이라는 의미이며, 살렘은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살렘이라는 이름은, 예루살렘이라는 말의 일부분이며, 비록 확실하게 말하지는 못하지만, 그가 당시 예루살렘의 왕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의 제사장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에게 축복을 받고 그에게 십일조를 주었다는 말도 듣습니다.

비록, 불신앙적인 이상숭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기는 했지만, 바벨탑 사건 이후에도, 아브라함 말고도 참되신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다윗은 시편110편을 기록하면서 주님께 대해서 말합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주님이며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1절)고 말합니다. 신약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면서, 이 구절을 수없이 사용합니다. 시편은 메시아가 왕이시며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오직 제사장이지만 한 레위의 자손들이나 오직 왕일 뿐이었던 다윗의 자손들과는 달랐습니다. 그 분은 제사장이며, 왕이 되실 것입니다. 멜기세덱의 우월한 서열을 따라 된 제사장이며, 아론과 그의 자손들보다 더 나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 크고, 아론보다 크며, 다윗보다 큰 인물로서,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이 얼마나 우월할 것인지를 알려줍니다. 히브리서는, 이 주제를 택하고 길게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중보자와 하나님의 궁극적인 제사장이자 왕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가지신 탁월한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은 히브리서 7장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막연한 인물, 멜기세덱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앞으로 성취될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멜기세덱의 계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비교하면서, “그리스도는 영원히 사시는 영원한 제사장입니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궁극적인 혈통은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비롯됩니다.

지금 우리는 구약을 연구하고 있는데, 조금 후에 그리스도의 왕직과 제사장직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배울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는 일찍이 창세기14장에서 보았고, 다윗도 시편110장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은 왕적인 통치자일 뿐 아니라,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구세주가 있습니다. 그 분은 약속된 왕이시며, 우리를 자신에게 굴복시키며, 그 분과 우리의 모든 대적들을 정복하실 분입니다. 하지만 그 분은 제사장도 되는 분입니다. 그분은 지존하신 대제사장, 곧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최고의 제물로 바치는 분입니다. 왕과 제사장이라는 이 두가지 직분이 한 위격 안에 결합되었습니다. 창세기14장에 나오는 모호한 이 세 절 말씀은, 반드시 성경 전체와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멜기세덱은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공급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둘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천사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천사들은 족장들을 주제로 하는 이 강의에서 중요한 두 번째 등장인물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천사들을 생각하면서 먼저 우리는 넓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여러 현현이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족장들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중요한 방식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성경의 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논의해야 합니다. 히브리서1:1은,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에, 이어서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은, 족장들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다양한 방식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한 방식들 중에 하나는 구약성경에 나오는 것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현현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현현이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보이는 형태로 그 모습을 다양하게 나타내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된 용어와 개념은 “그리스도의 현현”이라는 것인데 이는 성자, 곧 그리스도께서 보이는 모습으로 나타나시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현현과 그리스도의 현현은, 기본적으로 동일한 대상을 가리키는 두 단어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주된 이유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을 계시하시는 영원한 말씀이, 바로 삼위일체의 제2위가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1:18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 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한, 성경은 골로새서1:15에서, “그리스도를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묘사하고” 또 히브리어 1:3과 같은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고 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자기계시와 분리될 수 없습니다. 칼빈이나, 조나단 에드워즈, 그리고 바빙크를 비롯한 대다수의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여러 현현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시는, 사람에게 일시적이고, 육신적으로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이나, 목소리, 혹은 다른 형태를 사용하실 때, 이것을 현현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닌, 인간의 마음에 각인되는 꿈이나 환상과 같은 것들과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이 또 있는데, 신약성경에 나타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현현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육신은 성자께서 친히 인간의 본성을 취하신 것으로서, 참되고 영구적인 연합입니다.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과 행동으로 나타내신 다양한 예가 있지만, 현현의 역할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구약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현현, 곧 주의 사자에 대해서 생각해 봅시다.

주님의 사자로 나타난 현현의 구체적인 예를 보기 전에 현현의 넓은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16장에서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나타났습니다. 창세기22장에서 그 주의 사자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났고 32장에서는 아곱에게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3:2에서는 불타는 가시떨기에서 모세에게도 나타났고, 그 후 사사기6장에서는 기드온과 같은 사람들에게도 나타났습니다. “사자”라는 말은 “전달자”를 의미하므로 “주의 사자”는 “주의 전달자”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의 사자는 천국을 채우고 있는 피조된 천사들과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말라기3:1과 같은 구약의 다른 곳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사자 천사로 언급됩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는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피조되지 않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우리는 다음의 몇 가지 이유를 통해서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세기1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하갈에게 말씀하셨다고 언급되며, 하갈은 그를 하나님으로 부르입니다. 또 출애굽기 3장의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에서, 주의 사자는 모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말할 때,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면서, 자신의 이름이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사자가 보이는 형태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왜냐하면, 무엇보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주의 사자는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갈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세요. 그 이야기에서 주의 사자는 전지한 존재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한 다른 예들도 얼마든지 더 들 수 있습니다. 셋째로, 주의 사자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받습니다. 주의 사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받는데 이는 출애굽기 3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여호수아5:14과 기드온의 사사기6장에 나오는 반응을 주목하세요. 주의 사자는 천사들과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은 요한계시록18,19장에서, 요한이 천사들에게 경배를 하려고 할 때, 그들이 그것을 금하는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 천사들은 자신들이 요한과 같은 지존자의 종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의 사자는 이와 다릅니다. 그는 기쁘게 이 예배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의문점은 하나님의 현현의 목적이 무엇 이냐는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이 성경의 신학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가지는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 천사와 같은 여러 하나님의 현현이 가지는 목적을 아주 간단하게 다섯가지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명백합니다. 바로 계시입니다. 이것은 구약에 나타나는 특별계시의 한 방식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에 대한 것들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과 의지의 몇 가지 측면을 드러내기를 원하

셨습니다. 두번째, 목적은 구원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소통의 한 부분으로서 이러한 하나님의 여러 현현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주의 사자도, 구원의 좋은 소식을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인들에게 전하시는 하나님의 소통의 한 요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모습을 나타내시는 것들은, 각각 이 웅장한 계획에 있어서 자기의 역할이 있습니다. 이 사실도 역시, 주의 사자의 중요성이 이 강의의 전체 시리즈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계시에 대한 것이며, 우리에게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또 이것은 구속 혹은 구원에 대한 것으로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복음의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계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세번째, 목적은 확증입니다. 여러 현현들은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언약을 펼쳐지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들에게 개인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네번째, 목적은 위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확증을 주시면서 동시에 그들에게 위로를 주시는데 바로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주십니다. 다섯째로, “주의 사자”와 다른 하나님의 현현은 기대를 키우고자 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여기서 주된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체를 입고 오실 것에 대한 기대입니다. 달리 말하면, 이를 통해서 구약교회는 훗날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실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는 우리가 성경의 신학을 이해하는데 있어서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옴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옴에 대해서 다룰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족장시대의 인물들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인물입니다. 바로 우리가 마지막으로 다룰 인물이 옴입니다. 우리는 그의 이름을 딴 책에서 그에 대한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도 그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예를 들어, 야고보서5:11에는, “너희가 옴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영감된 이야기는 족장시대에 있었던 하나님의 계시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새로운 창을 우리에게 제공합니다.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옴기를 건너뛰거나 구약성경의 시가서 중에 하나로 생각하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유혹을 받습니다. 하지만 옴기는 42장이나 되는 많은 분량을 가진 책입니다. 저는 옴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제 앞으로 보겠지만, 옴기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과 동시에 천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상응하는 사건들 사이에 있는 관계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지구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거래가 펼쳐지는 무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분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을 드러냅니다.

이 사실을 아는 것은 다른 많은 성경 본문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신약성경에는 죄인 한 명이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천사들도 즐거워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시, 이에 대해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응해서 천국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선택하시고, 그 다음으로 그분은 이 땅에 있는 각각의 죄인들을 중생시키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아주 외딴 곳에 정말로 작은 이름 모를 마을이 있는데, 적은 무리의 신자들이 거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그 경우에,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작은 교회의 회중 속에 있는 한 사람의 죄인도 구원하십니다.

성경은 바로 그 때 한 명의 죄인이 회개하는 것을 기뻐하는, 이 강력한 천사들에게서 나오는 천둥같은 기쁨의 외침이 하늘을 가득 채운다고 말합니다. 옴기에 나오는 이 신학적인 요점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의 다른 부분에 대한 이해에도 도움이 됩니다. 옴기1:1에는 옴이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우스 땅에 옴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뿐만 아니라 옴은 부자였습니다. 말씀은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옴기를 공부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세가지 신학적 주제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첫째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섭리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하나님은 우주의 모든 구체적인 것들 모든 분자들까지 주관하십니다. 위대한 종교개혁자였던 존 칼빈은, “만약 여러분이 관심을 가진다면 섭리에 대한 무지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최고의 축복은 바로 이 섭리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입니다”라고 썼습니다. 하나님은 옴기 안에 영감된 주석을 제공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만이 아니라 왜 그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은 처음 시작부분에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을 책의 마지막에서 다시 변론하십니다. 욥의 세친구들이 한 말과는 달리, 모든 고난이 다 개인적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아닙니다. 우리는 욥이 고난을 당한 이유가 그가 경건했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보이시기로 선택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욥에게 이런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이 있다는 것을 언급할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당한 재난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지금 자신에게 엄청난 재난이 눈 앞에 펼쳐지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그는 이런 재난을 간과하고 그 재난의 시작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보았습니다.

1:20이하에서 욥은,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을 당하면서도 욥은 죄를 범하지 않았고 어리석게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초대교회의 신학자였던 어거스틴은, “욥은 주님께서 주시고 마귀가 가져갔다고 말하지 않고 주님께서 가져가셨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쪽 앞으로 나가서, 슬픔의 사람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이 내용이 얼마나 도움이 될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는 단순히 유다와 대제사장들과 빌라도와 헤롯을 비롯한 그의 군병들이나 마귀에게 굴복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조화롭게 사용하셔서 자신의 백성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4:27,28에서 사도들은 바로 이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두번째, 신학적인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자들의 삶과 그 속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더 넓고 큰 스토리에 부합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욥기에 나오는 가장 심오한 신학적 요점일 것입니다.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스토리가 이 세상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욥기는 이 커튼을 활짝 열어 젖히고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말해 줍니다.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을 이해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존전에 가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1:8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 모든 일에 주도권을 쥐고 계시며 사탄에게 욥이 은혜의 트로피라고 자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천사들 앞에서 욥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사탄은 이에 반대하며 욥은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욥이 모든 것들 보다 하나님을 높이 여긴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방식을 통하여, 자신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 사탄의 고소를 물리칩니다. 욥의 고난은,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에게 있어서 최고의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욥기의 앞 부분에서 2:9절에 나오는 위기의 순간까지 어떻게 이 모든 사건들이 전개되고 긴장이 고조되는지 보았습니다. 여기 보면, “그의 아내 (욥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겠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사탄이 미소를 짓고 있다는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천사들이 호흡을 멈춘 채, 시선을 욥에게 고정하고 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다음 10절에서 욥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저는 이 때 수십만의 천사들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만군의 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소리치며 하늘이 열리는 장면을 상상합니다. 사탄이 패하여 하나님의 존전에서 도망치는 모습을 봅니다. 사탄은 하나님에 대한 신자의 사랑과 기쁨을 망치는 것을 목표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저 안락하게 살거나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지어 고난 가운데서도 바로 이 일을 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에서 욥은 우리를 위하여 묘사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것들을 보지 못했습니다. 기억하세요. 우리는 세상의 중심이 아닙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대한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며 그분의 영광을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볼 수 있는 마지막 신학적인 주제는 그리스도 중심사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몇 가지 방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욥은 그리스도와 교제하기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음식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긴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주님이 자신에게서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일 때조차 그는 23장에서 확증합니다. “내가 가는 그 길을 그가 (하나님)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 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는 욥이 이생을 넘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영광 가운데 바라봄을 봅니다. 그래서 욥은 19:25-27에서,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족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닦은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라고 말합니다.

욥기에 나타나는 독특한 주제들도 있지만, 여기서 이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가지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표현에 대한 것입니다. 욥기에는 이 표현이 10번이나 나타납니다. 이 표현은 시편에도 사용됩니다. 예를 들면, 시편23:4, 시편44편 시편107편 등등에 나타납니다. 여기 멈추지 않고 이 표현은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그리고 아모스서와 같은 선지서에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인 신약성경에도 아름다운 방식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마태복음4:16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1장의 마지막 부분에도 “돋는 아침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의 표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성경에 있는 이 표현의 기원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초기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조각을 하나로 맞추기 위해서 성경과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욥기는 모든 세대에 있어서, 한 신자, 개인은 반드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는 하늘과 땅의 온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마지막날에 절정을 이룰 것인데 이 때 하나님은 자신이 구속하여 완전하게 만든 백성이라는 걸작을 드러내 보이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아브라함의 계보 밖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시기 위해서 사용하기로 선택하셨던 세 명의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다시 아브라함의 계보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모세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이 시대는 바로 구약성경 나오는 가장 위대한 사건들 중에 하나인 출애굽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합니다.